

十干의 陰陽, 五行, 相沖, 臟腑配合에 關한 연구

¹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대학원생 · ²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유영준¹ · 尹暢烈^{2*}

A Study on Yin Yang, Wuxing, Mutual Collision, and Zangfu Combination of the Ten Heavenly Stems

Yoo Young-Joon¹ · Yun Chang-Yeol^{2*}

¹Graduate Student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Understanding the Ten Stems and Twelve Branches is necessary to grasp the laws of change in Heaven and Earth.

Methods : Based on relevant contents in East Asian classics, the Yin Yang, Sibling Wuxing, Husband-Wife Wuxing combinations as well as Mutual Collision and Zangfu combination were examined.

Results & Conclusion : Yin Yang combination of the Ten Stems are divided according to odd/evenness.

The Sibling Wuxing combination is categorized according to one life cycle of vegetation, resulting in Jia Yi Wood, Bing Ding Fire, Wu Ji Earth, Geng Xin Metal, Ren Gui Water.

The Husband-Wife Wuxing combination of the Ten Stems are Jia Ji Earth, Yi Geng Metal, Bing Xin Water, Ding Ren Wood, Wu Gui Fire, which corresponds to the principles of the Duihuazuoyong Theory.

Within the Husband-Wife Wuxing combination lies three principles which are Yin Yang combination, Mutual Restraining combination, and the Yang Stem restraining the Yin Stem. The Mutual Collision of the Ten Stems are Jia and Geng, Yi and Xin, Ren and Bing, Gui and Ding against each other.

In matching Zangfu to the Ten Stems, Jia matches with Gallbladder, Yi matches with Liver; Bing matches with Small Intestine, Ding matches with Heart; Wu matches with Stomach, Ji matches with Spleen; Geng matches with Large Intestine, Xin matches with Lung; Ren matches with Bladder, Gui matches with Kidney. : When the adjacent vectors are extracted, the count-based word embedding method derives the main herb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in the prediction-based word embedding method, the synonyms of the herbs were derived.

Key words : ten heavenly stems, brothers wu xing combination, couple wu xing combination, mutual collision, viscera combination.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82-042-280-2601, E-mail: yooney@dju.kr

Received(April 22, 2019), Revised(May 9, 2019), Accepted(May 9,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동양에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主體를 天地라고 부르는데 天地는 만유생명과 진리의 근원이 된다. 天地의 변화 작용을 파악하여 신비를 풀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동양의 선각자들은 干支를 창안하였다. 이 중에서 干은 하늘의 변화질서를 파악하므로 天干이라 하고, 또 하늘은 陽의 작용을 하므로 陽干이라 하며 10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十干이라고도 부른다. 『史記』에서는 ‘十母’라고 하였다. 반면 支는 땅의 변화질서를 파악하므로 地支라 하고, 또 땅은 陰의 작용을 하므로 陰支라 하며 12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十二支라고도 부른다. 『史記』에서는 十二子라고 하였으며 十二辰이라고도 부른다.

『皇極經世』 「觀物外篇」에서 “양수는 하나가 늘어나서 열이 되니 10干的 종류가 이런 것이고 음수는 둘이 늘어나서 열둘이 되니 12支와 12월의 종류가 이런 것이다. 10干은 하늘이고 12지는 땅이니 干支는 하늘, 땅의 작용에 배속시킨 것이다. 干은 줄기의 뜻이니 양이고 支는 가지의 뜻이니 음이다. 干이 10이고 支가 12인 것은 곧 양수 가운데 음이 있고 음수 가운데 양이 있음이다(陽數는 一衍之而十이니 十干之類가 是也오 陰數는 二衍之而十二니 十二支十二月之類가 是也라. 十干은 天也오 十二支는 地也니 支干은 配天地之用也라. 干者는 幹之義니 陽也오 支者는 枝之義니 陰也라 十干而支十二는 是陽數中有陰하고 陰數中有陽也라.)”¹⁾하였다. 이는 하늘을 대표하는 수는 일인데 이것이 늘어나서 10干이 되고 땅을 대표하는 수는 이인데 이것이 늘어나서 12支가 되어 干支는 天地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말한 陽數中有陰은 天干에 乙, 丁, 己, 辛, 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陰數中有陽은 地支에 子, 寅, 辰, 午, 申, 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十干者는 天氣之陰陽也오 十二支者는 地氣之陰陽也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운기학에서 十干으로 五運의 변화를 파악하고 十二支로 六氣의 변화를 파악하므로 “十干者는 五行有陰陽也오 十二

支者는 六氣有柔剛也”라고 말할 수 있다. 黃畿는 『皇極經世』의 注에서 “1은 곧 10의 시작이고 10은 1의 끝이며 2는 곧 12의 시작이고 12는 곧 2의 끝이다(蓋一卽十之始也오 十卽一之終也며 二卽十二之始也오 十二卽二之終也라.)”²⁾ 하였고 또 “하늘의 수 1, 3, 5, 7, 9는 5가 중앙에 있으니 5를 두 배 하면 10이 되고 땅의 수 2, 4, 6, 8, 10은 6이 중앙에 있으니 6을 두 배하면 12가 되며 5와 6을 서로 곱하여 두 배하면 60이 되니 하늘과 땅의 작용이 말미암아 행해지는 바다. 그러므로 日과 星은 干을 쓰고 月과 辰은 支를 쓰는 것이다.(天數가 一三五七九而中於五하니 倍之爲十하고 地數가 二四六八十而中於六하니 倍之爲十二오 五六倍自相乘이면 爲六十하니 天地之用이 所由行也라 故로 日星以干하고 月辰以支라.)”³⁾고 하였다.

오운육기를 위시한 동양의 의학, 철학과 술수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天干의 음양배합, 형제오행배합, 부부오행배합, 相沖, 장부배합 등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논자는 이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陰陽配合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10干은 그 순서가 甲1·乙2·丙3·丁4·戊5·己6·庚7·辛8·壬9·癸10으로 되어 있다. 10干的 음양배합은 陽先陰後(앞에 있는 것이 陽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이 陰이 됨), 陽奇陰偶(奇數가 陽이 되고 偶數가 陰이 됨)의 원리에 의해 1, 3, 5, 7, 9번째에 위치하는 甲·丙·戊·庚·壬은 陽에 配合되어 陽干이 되고 2, 4, 6, 8, 10번째에 위치하는 乙·丁·己·辛·癸는 陰에 配合되어 陰干이 된다. 위의 陽先陰後, 陽奇陰偶의 원리에 대해 任應秋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정말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從來로 모두 陰陽이라고 부르

1) 소강철 저, 윤상철 편역. 황극경세(3). 서울. 대우학당. 2011. pp.569-572.

2) 소강철 저, 윤상철 편역. 황극경세(3). 서울. 대우학당. 2011. p.569.

3) 소강철 저, 윤상철 편역. 황극경세(3). 서울. 대우학당. 2011. p.571.

고 陽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 陰이 앞에 있고 陽이 뒤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응당 奇偶之序에 의한 것이다.”⁴⁾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陰陽이라는 말은 陰이 陽을 낳는다는 말이다. 즉 陰이 근원적인 창조의 주체가 된다는 말로 10무극 陰이 1태극 陽을 生(주렴계의 태극도설에서 無極而太極이라 하였는데 九江에 있는 故家의 傳本에 無極而生太極이라 되어 있어 무극이 體가 되고 태극이 용이 되어 무극이 태극을 생한다고 하였다.)하고 陰인 여자가 아기를 낳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생겨난 이후에는 陽이 先導하고 陰이 추종한다. 따라서 陰陽은 근원적인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陽陰은 생겨난 이후 변화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陰陽이라는 말속에는 地天泰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

天干의 陰陽配合은 作用에 따른 위의 구분뿐만 아니라 生成의 先後에 따라 甲五土가 주체가 되어 甲戌以陰變하는 분열의 과정을 이루는 甲·乙·丙·丁·戊의 化的 시간대를 陽이라고 하고 己十土가 주체가 되어 己癸以陰變하는 통일의 과정을 이루는 己·庚·辛·壬·癸의 變의 시간대를 陰이라고 부른다. 奇偶의 배합이든 生成의 배합이든 ‘一陰一陽之謂道’하는 자연의 질서와 서로 整合한다. 十干을 太少陰陽으로 나누어 배합하면 甲乙을 少陽에, 丙丁을 太陽에, 庚辛을 少陰에, 壬癸를 太陰에 배합하고 戊己는 中土에 배합할 수 있다. 이는 『주역』과 『내경』에서 木은 陰中之陽으로 少陽, 火는 陽中之陽으로 太陽, 金은 陽中之陰으로 少陰, 水는 陰中之陰으로 太陰에 배속시킨 원리이다.

Ⅲ. 方位五行配合

『類經圖翼·五行統論』에서 “十干以應日하니 天之五行也라. 甲陽乙陰이 爲木이오 丙陽丁陰이 爲火오 戊陽己陰이 爲土오 庚陽辛陰이 爲金이오 壬陽癸陰이 爲水라.”⁵⁾ 하였다. 위의 내용은 10干은 태양 또는

날의 변화와 상응하는데 甲乙이 木이 되고 丙丁이 火가 되고 戊己가 土가 되고 庚辛이 金이 되고 壬癸가 水가 된다는 것이다. 天干의 배열순서는 孕育, 發生, 生長, 衰老, 死亡의 五운 즉 生長化收藏하는 식물의 한 살이 週期를 상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田字에서 아래로 뺏어나간 것으로 초목의 종자가 생명을 처음으로 孕育하여 먼저 껍질을 뚫고 뿌리가 생겨난 것을 상징한다.

乙은 종자에서 싹이 터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상징한다. 陽은 안에 있고 陰이 밖에서 싸고(종자의 껍질과 종자를 덮고 있는 흙) 있기 때문에 싹이 꾸불꾸불 자라게 된다.

丙은 싹이 껍질을 깨고 땅을 뚫고 나와 땅위에 모습을 드러내 밝게 볼 수 있는 것을 상징한다.

丁은 싹이 싹씩하게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여 마치 사람이 壯丁이 되는 것 같은 것을 상징한다.

戊는 초목의 생장이 이미 繁榮하고 茂盛해지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己는 記(기억하다)와 己(그치다)의 뜻이다. 초목의 성장발전의 형세가 이미 極點에 이르러 이미 가히 기억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것을 상징한다. 열매가 成熟하여 더 이상 生長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다.

庚은 바뀌고 전환된다는 뜻이다. 사물의 발전이 이미 끝까지 와서 제일차의 생명이 장차 종결되고 다시 다음 번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고 전환되는 것이다.

辛은 새로워지는 것(新也)이니 새로운 생명의 기틀이 潛伏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壬은 임신한다는 뜻(妊也)이니 陽氣가 이미 안에 모여서 새로운 생명이 이미 孕育을 시작하는 것이다.

癸는 헤아리다 또는 기다리다(揆)의 뜻이다. 陽氣가 아래 잠복하여 정기를 기르고 축적하였다가 다음 주기의 생명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만물이 싹을 틔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⁶⁾

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9.

6) 閻鈞天. 運氣撮要.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5.

4) 劉杰. 中國八卦運氣. 青島. 青島出版社. 1999. p.187.

위의 내용으로부터 살펴보면 중자가 꺾질을 뚫고 나와 뿌리를 내리는 甲의 단계와 꺾질과 땅을 뚫고 나와 힘들게 짝이 위로 꾸불꾸불 올라오는 乙의 단계는 木이 될 것이고, 땅을 뚫고 나와 땅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丙의 단계와 씩씩하게 성장을 하는 丁의 단계는 火가 될 것이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戊의 단계와 초목의 성장이 중지되고 과실이 다 자라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己의 단계는 土가 될 것이고, 陽에서 陰으로 전환되고 다음번의 생명을 준비하는 庚의 단계와 새로운 생명의 기틀이 잠복하는 辛의 단계는 金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기 시작하는 壬의 단계와 다음 주기의 생명이 싹을 틔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癸의 단계는 水에 배합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甲乙은 生의 뜻이 있어 五行의 木이 되고, 丙丁은 長의 뜻이 있어 五行의 火가 되고, 戊己는 化의 뜻이 있어 五行의 土가 되고, 庚辛은 收의 뜻이 있어 五行의 金이 되고, 壬癸는 藏의 뜻이 있어 五行의 水에 배속된다. 天干과 方位의 배속관계는 甲乙은 동방에居하고 동방은 木의 자리가 되므로 甲乙은 木에 속하고, 丙丁은 남방에居하고 남방은 火의 자리가 되므로 丙丁은 火에 속하고, 戊己는 중앙에居하고 중앙은 土의 자리가 되므로 戊己는 土에 속하고, 庚辛은 서방에居하고 서방은 金의 자리가 되므로 庚辛은 金에 속하고, 壬癸는 북방에居하고 북방은 水의 자리가 되므로 壬癸는 水에 속한다. 그리하여 『素問』의 「藏氣法時論」에서 “肝主春, ……其日甲乙(王冰注: 甲乙爲木, 東方干也), ……心主夏, ……其日丙丁(王冰注: 丙丁爲火, 南方干也), ……脾主長夏, ……其日戊己(王冰注: 戊己爲土, 中央干也), ……肺主秋, ……其日庚辛(王冰注: 庚辛爲金, 西方干也), ……腎主冬, ……其日壬癸(王冰注: 壬癸爲水, 北方干也).”⁷⁾라 하였다. 十干에 숫자를 배합해보면 甲乙木에서 甲은 陽木, 乙은 陰木이므로 甲은 3木이 되고 乙은 8木이 되며, 丙丁火에서 丙은 陽火, 丁은 陰火이므로 丙은 7火가 되고 丁은 2火가 되며, 戊己

土에서 戊는 陽土, 己는 陰土이므로 戊는 5土가 되고 己는 10土가 되며, 庚辛金에서 庚은 陽金, 辛은 陰金이므로 庚은 9金이 되고 辛은 4金이 되며, 壬癸水에서 壬은 陽水, 癸는 陰水이므로 壬은 1수가 되고 癸는 6수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河圖에다가 10干을 배합하고 표로 만들면 Table 1.과 같다.

도표 1. 하도와 십간의 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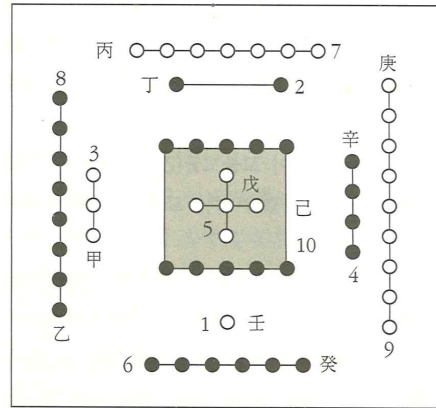


도표 2. 십간의 순서, 음양, 형제오행 및 숫자의 배합

十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順序	1	2	3	4	5	6	7	8	9	10
陰陽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陽	陰
五行	木		火		土		金		水	
配合數	3	8	7	2	5	10	9	4	1	6

IV. 夫婦五行配合

方位五行配合은 兄弟五行配合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행속성으로, 인간으로 말한다면 시집, 장가가기 전의 본래의 자기의 성질을 말하니 선천적인 것이 된다. 夫婦五行이란 變化五行, 化氣五行, 相合五行이라고도 하는데, 음양 짝이 되는 상대방의 기운을 받아서 변화된 것으로 인간으로 말한다면 시집, 장가를 간 뒤에 배우자의 영향으로 자신의 성질이 바뀌게 된 것으로 후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pp.33-34.

7)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高文社. 1977. pp.66-67.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 “甲己之歲에 土運이 統之하고 乙庚之歲에 金運이 統之하고 丙辛之歲에 水運이 統之하고 丁壬之歲에 木運이 統之하고 戊癸之歲에 火運이 統之라.”⁸⁾ 하였고 또 『素問』의 「五運行大論」에서 “土主甲己하고 金主乙庚하고 水主丙辛하고 木主丁壬하고 火主戊癸라.”⁹⁾고 하여 甲己가 化土하고 乙庚이 化金하고 丙辛이 化水하고 丁壬이 化木하고 戊癸가 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주장을 살펴보고 化氣五行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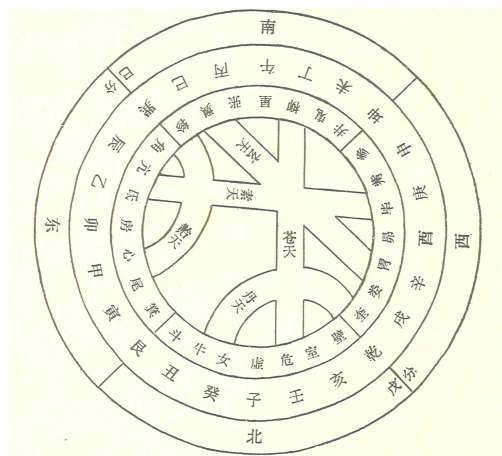
1. 五氣經天化五運說

『素問』의 「五運行大論」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가 『太始天元冊』의 글을 살펴보니 丹天之氣는 牛女와 戊分을 가로질렀고, 齡天之氣는 心尾와 己分을 가로질렀고, 蒼天之氣는 危室과 柳鬼를 가로질렀고, 素天之氣는 亢氏와 昴畢을 가로질렀고, 玄天之氣는 張翼과 婁胃를 가로질렀으니 이른바 戊己의 분야는 奎壁과 角軫이니 天門과 地戶가 됩니다.(臣覽太始天元冊文하니 丹天之氣는 經於牛女戊分하고 齡天之氣는 經於心尾己分하고 蒼天之氣는 經於危室柳鬼하고 素天之氣는 經於亢氏昴畢하고 玄天之氣는 經於張翼婁胃하니 所謂戊己分者是 奎壁角軫이니 則天地之門戶也나이다)”¹⁰⁾

『太始天元冊』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고대천문학과 관련된 서적으로 보고 있으나 한동석은 冊을 策으로 보아 太始 때에 나타난 天元紀의 秘策(비밀스런 조짐이나 계시)이 하늘에 무늬를 이룬 것을 관찰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¹⁾. 태시천원책을 보니 丹天之氣, 齡天之氣, 蒼天之氣, 素天之氣, 玄天之氣가 上記한 28宿의 方向으로 氣운을 裊었다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五氣經天化五運圖



丹天之氣 즉 火에 속하는 赤氣는 牛女와 奎壁의 분야로 기운이 裊쳤는데 牛女는 24방위에서 癸에 속하고 奎壁은 戊분이므로 戊癸는 化火한다. 齡天之氣 즉 土에 속하는 黃氣는 心尾와 角軫의 분야로 기운이 裊쳤는데 心尾는 24방위에서 甲에 속하고 角軫은 己분이므로 甲己는 化土한다. 蒼天之氣 즉 木에 속하는 靑氣는 危室, 柳鬼로 기운이 裊쳤는데 危室은 壬에 속하고 柳鬼는 丁에 속하니 丁壬은 化木한다. 素天之氣 즉 金에 속하는 白氣는 亢氏, 昴畢로 기운이 裊쳤는데 亢氏는 乙에 속하고 昴畢은 庚에 속하니 乙庚은 化金한다. 玄天之氣 즉 水에 속하는 黑氣는 張翼, 婁胃로 기운이 裊쳤는데 張翼은 丙에 속하고 婁胃는 辛에 속하니 丙辛은 化水한다. 이상의 내용은 太古 시대 때 하늘에서 五氣를 관찰하여 甲己土運, 乙庚金運, 丙辛水運, 丁壬木運, 戊癸火運의 五運을 확정했다는 내용으로 化氣五行의 유래와 오운의 개시가 오랜 옛날로까지 소급됨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戊己分者是 奎壁角軫이니 則天地之門戶也라.”에 대하여 王冰은 “戊土는 乾에 속하고 己土는 巽에 속한다. 둔갑경에서 ‘戊子, 戊寅, 戊辰, 戊午, 戊申, 戊戌의 六戊는 天門이 되고, 己丑, 己卯, 己巳, 己未, 己酉, 己亥의 六己는 地戶가 되니 새벽과 저녁에 서북과 동남에서 비올 것을 점친다’고 한 것은 그 의미를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비오는 것은 土가 작용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28.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29.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29.
1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37.

하는 것이니 습기가 비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을 친다(戊土屬乾하고 己土屬巽이라. 遁甲經에 曰 六戊爲天門이오 六己爲地戶니 晨暮에 占雨以西北東南은 義取此라. 雨爲土用이니 濕氣生之 故로 此占焉이라.)”¹²⁾ 하였는데 王冰은 天不足西北하고 地不滿東南하여 門戶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개빈은 『類經圖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규벽은 乾자리에 임하니 戊土의 자리에 해당하고 각진은 巽자리에 임하니 己土의 자리에 해당한다. 『둔갑경』에서도 六戊는 天門이 되고 六己는 地戶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門이라 하고 戶라 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나 선현들이 모두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일찍이 하늘을 도는 七政의 궤도를 살펴보건대 춘분 2월 중기에 태양은 壁初에 머무르고 순서대로 남쪽을 향하여 3월에 奎婁에 들어가고 4월에 胃昴畢에 들어가고 5월에 觜參에 들어가고 6월에 井鬼에 들어가고 7월에 柳星張에 들어가고 8월 중기에 태양이 翼宿의 끝에 머무르다가 軫宿에 들어가고 순서에 따라 북쪽을 향하여 9월에 角亢에 들어가고 10월에 氐房心에 들어가고 11월에 尾箕에 들어가고 12월에 斗牛에 들어가고 정월에 女虛危에 들어가고 2월이 되면 다시 춘분이 되어 奎婁에 들어가게 된다.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만물이 발생하는 것이 모두 규벽으로부터 시작하고,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만물이 收藏하는 것이 모두 각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춘분이 여는 것을 담당하고 추분이 닫는 것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대저 이미 열고 닫는 것을 관장한다면 요컨대 門戶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규벽으로부터 남쪽은 태양이 陽道에 나아가기 때문에 天門이라 말하고 각진으로부터 북쪽은 태양이 陰道에 나아가기 때문에 地戶라고 부른다.(夫奎壁은 臨乾하니 當戊土之位오 角軫은 臨巽하니 當己土之位라 遁甲經에 亦曰 六戊爲天門이오 六己爲地戶라하니라 然而曰門曰戶는 必有所謂나 先賢은 俱未詳及이라 予嘗考周天七政躔度컨대 則春分二

月中에 日躔壁初하고 以次而南하야 三月에 入奎婁하고 四月에 入胃昴畢하고 五月에 入觜參하고 六月에 入井鬼하고 七月에 入柳星張하며 秋分八月中에 日躔翼末이라가 以交于軫하고 循次而北하야 九月에 入角亢하고 十月에 入氐房心하고 十一月에 入尾箕하고 十二月에 入斗牛하고 正月에 入女虛危하고 至二月하야 復交于春分而入奎壁矣라 是日之長也와 時之暖也와 萬物之發生也가 皆從奎壁始하고 日之短也와 時之寒也와 萬物之收藏也가 皆從角軫始라 故로 曰春分司啓하고 秋分司閉라하니라 夫既司啓閉면 要非門戶而何오 然自奎壁而南은 日就陽道 故로 曰天門이오 角軫而北은 日就陰道 故로 曰地戶라)”¹³⁾

장개빈은 태양의 운행이 서북쪽(奎壁)에 있을 때 춘분의 때에 해당하여 陽道가 열리게 됨으로 天門이 되고 서쪽을 지나고 남쪽을 지나 동남쪽(角軫)에 있을 때 추분의 때에 해당하여 陰道가 열리게 됨으로 地戶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는 문왕팔괘에서 각각 乾巽의 方位에 해당하고 天干에서 각각 戊己에 배합된다. 혹자들은 天門과 地戶의 위치를 반대로 설명하는 자가 있으나 장개빈의 설명이 명쾌함으로 서북이 天門이 되고 동남이 地戶가 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對化作用說

한동석은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의 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化生(生化)시키고 己甲變土, 庚乙變金, 辛丙變水, 壬丁變木, 癸戊變火의 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變成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內經』 「天元紀大論」에서 “物生을 謂之化오 物極을 謂之變이라.”한 것에 근거하여 甲에서 戊까지의 전반기의 陽과정을 化라 하고 己에서 癸까지의 후반기의 陰과정을 變이라 한 것이다. 對化作用이란 나의 짝이 되는 상대방의 기운을 받아 자신의 본질적인 五行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오행이 이와 같은 순서로 生하며 변화하는 것은 주로 자기의 소우주에서 形氣相感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말하면

12) 白允基 譯.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p.173.

1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25-26.

甲土는 甲木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乙金은 乙木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丙水는 丙火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丁木은 丁火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戊火는 戊土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五運은 자기 우주를 형성하는 바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주변화의 원리』 책을 중심으로 論者의 의견을 덧붙여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은 오행으로 보면 陽木이므로 3木이 된다. 3木은 水를 계승하여 초목이 처음으로 싹이 트는 水生木의 과정이다. 응고되어 있는 水에서 陽氣를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甲이 土로 변화하여 甲土의 擴張性에 의하여 외부의 堅質을 완화하여서 一陽이 脫出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甲은 오행의 木인 즉 甲木은 용출하려는 야심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甲土와는 木克土하므로 그 성질이 이질적이다. 그런데 甲은 반대방향에 있는 강력한 己土가 10土의 성질로써 甲木에 기운을 던져주어 甲은 甲5土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甲5土는 土克水를 하여 응고되어 있는 水를 이완시켜 水 속의 陽氣가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고 이후 乙·丙·丁·戊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乙은 본래 陰木인 8木이다. 陰木은 陽木과는 달리 형체가 있는 나무이다. 乙이 형체가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金克木을 받아야만(生物之正) 木形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乙金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는 乙의 반대편에 있는 庚金이 乙木에 대화작용을 하여 乙木을 一面木, 一面金의 성질로 化하게 하여 준다. 이렇게 변화된 乙金은 木形을 창조하는 것이다.

丙은 본래 陽火로서 7火이다. 7火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로 散布作用을 한다. 즉 丙火는 탄력을 가지고 散布作用을 하면서도 과도하게 분열하여 陽이 散失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散陽作用과 護陽作用을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火가 중도적으로 작용하는 升明作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水로 바뀌어야만 한다. 丙이 어떻게 水로 바뀌게 되는가. 이는 반대편에 있는 강력

한 陰金인 辛金이 丙火를 포위하여 丙火를 丙水로 변화시킨다. 이는 金火가 交易하면 水가 생기는 이치인데 즉 金이 분열하는 火를 포위하여 압력을 가해주면 水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丙7火와 辛4金을 더하면 11이 되어 10+1로 생명이 압축되면 통일되어 水가 되는 象이 나타나 있다.

丁은 丙火를 계승하여 火의 분열이 더욱 심해지는 자리이다. 丁도 역시 散陽작용을 하면서도 護陽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水를 필요로 한다. 丙은 자신이 水로 바뀌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丁은 壬水의 대화작용을 받아 水克火를 당하게 된다. 水克火를 당한 丁은 一步 후퇴하여 木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한 丁은 一面 양의 散失을 방지하면서 水克火를 통해 己土運의 준비도 하게 된다. 丁火가 壬水의 대화작용을 받아 木으로 바뀌는 象은 2火+1水=3木에서 살펴볼 수 있고, 己土運의 준비는 2火+8木=10土의 象에서 살펴볼 수 있다.

戊는 陽土로 丁火를 계승하여 만물의 변화가 長茂의 極에 이르는 때이며, 陽의 散布도 丁火 이상으로 세분화되는 곳이다. 陽의 발산이 戊에서 최고조에 이르지만 戊는 본래 土이므로 陽의 散失을 방지하는 힘이 있고 또한 맞은편에 있는 癸水의 대화작용을 받아 戊를 一步 후퇴시켜 戊火를 만든다. 戊火는 水土가 同德하여 작용하는 자리이므로 陽이 산실될 염려가 더욱 적어진다.

이렇게 하여 先天의 양운동은 끝을 맺고 己에서부터 후천의 음운동이 시작하게 된다.

己는 방위오행에서도 土이고 변화오행에서도 土이다. 己는 甲乙丙丁戊의 과정에서 분열되었던 陽氣를 수렴하고 통일하여 精神과 神明을 창조하는 中樞가 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오행과 오운의 象과 數가 동일하다. 己土는 甲木의 대화작용을 받아 木克土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必要克인 것이다.

庚은 己를 계승해서 정신을 수렴하는 中樞가 되므로 역시 오행과 오운이 모두 金으로 변화가 없다. 이는 성질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주의 목적인 정신을 통일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庚金은 乙木의 대화작용을 받아 木氣를 포용하고 포위하는 작용

을 한다.

辛은 본래 陰金인 4金이다. 陰金은 庚金인 陽金보다 수렴작용이 더욱 강력하다. 따라서 강력한 수축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맞은편에 있는 丙火의 대화작용을 받아 辛金과 丙火가 金火交易하여 水를 生하여 辛水로서 작용하게 된다.

壬은 1水이다. 1水에 해당하는 壬자리는 변화의 목적이 완성된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기반이 된다. 새로운 출발은 木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壬水는 어떻게 壬木으로 바뀌게 되는가. 이것은 맞은편에 있는 丁火의 대화작용을 통해서 壬木으로 바뀌게 된다. 물에 불이 가하여지면 생명의 시작인 木이 발동한다. 이는 계란을 어미닭이 품어 주면 병아리가 나오는 이치와 동일하다. 水象으로 보더라도 壬1水+丁2火=3木이 되어 壬水가 壬木으로 변화하는 象이 있다. 완전하게 통일, 수축되어 있는 壬水에 散布性이 있는 丁火가 합세하면 수축되었던 것이 이완되어 陽氣가 발동하여 水中之木이 된다. 현실에서의 木은 甲에서부터 시작하나 자연계의 변화는 壬에서부터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癸는 본질적으로 陰水인 6水이다. 6水는 1水가 확장되고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水가 6수로 확장이 되는가. 이는 맞은편 戊土의 대화작용에 의해서 土克水를 당하게 되면 6水의 象을 띄면서 一面火로 바뀌어 水中之火가 된다. 癸가 一面水, 一面火의 모습을 띄는 것은 水火一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水가 응고되어 영원히 幽閉되지 않고 陽氣가 발동하여 水火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순환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¹⁴⁾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방위오행의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는 生長化收藏하는 자연의 질서를 나타내고 있고,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는 위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성질을 변화시킨 것인데 그 요인이 자신과 짝이 되는 맞은편 天干의 對化를 받아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3. 生于正月建寅說

五氣經天化五運의 啓示설, 對化作用의 合理說 외에 10干의 變化五行이 正月달의 月建인 寅에서 生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甲己년에 머리가 되는 정월달의 월건이 丙寅이고 丙은 火의 양간으로 火生土하기 때문에 甲己는 土運이 된다. 乙庚년에 머리가 되는 정월달의 월건이 戊寅이고 戊는 土의 양간으로 土生金하기 때문에 乙庚은 金運이 된다. 丙辛년에 머리가 되는 정월달의 월건이 庚寅이고 庚은 金의 양간으로 金生水하기 때문에 丙辛은 水運이 된다. 丁壬년에 머리가 되는 정월달의 월건이 壬寅이고 壬은 水의 양간으로 水生木하기 때문에 丁壬은 木運이 된다. 戊癸년에 머리가 되는 정월달의 월건이 甲寅이고 甲은 木의 양간으로 木生火하기 때문에 戊癸는 火運이 된다. 이것은 오운이 정월달의 월건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如甲己之歲에 正月首建丙寅하고 丙者는 火之陽으로 火生土 故로 甲己爲土運이요 乙庚之歲에 正月首建戊寅하고 戊者는 土之陽으로 土生金 故로 乙庚爲金運이요 丙辛之歲에 正月首建庚寅하고 庚者는 金之陽으로 金生水 故로 丙辛爲水運이요 丁壬之歲에 正月首建壬寅하고 壬者는 水之陽으로 水生木 故로 丁壬爲木運이요 戊癸之歲에 正月首建甲寅하고 甲者는 木之陽으로 木生火 故로 戊癸爲火運이라 此는 五運이 生于正月之建者也라)”¹⁵⁾

위의 내용을 보충설명해보면 60甲子에서 甲年이나 己年의 해에 정월달의 월건은 ‘甲己之年丙寅頭’하기 때문에 항상 丙寅이 된다. 丙은 형제오행에서 火가 되고 火生土하기 때문에 甲己化土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큰 의의는 없다고 사료된다.

4. 十二肖說(遇龍而變說)

12宮中에서 오직 龍은 잘 변하고 辰位에 속한다. 十二肖說은 時頭法(甲己夜半生甲子, 乙庚夜半生丙子 등)으로 시작하는 子를 찾아서 辰宮까지 이르게 되면 이때 만나는 天干을 따라서 함께 변화하게 된다

14)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p.127-134.

1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39-40.

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甲己의 干頭는 甲子에서 시작하고 辰에 이르면 戊가 된다. 戊는 土가 되므로 甲己는 化土하게 된다. 乙庚의 干頭는 丙子에서 시작하고 辰에 이르면 庚이 된다. 庚은 金이 되므로 乙庚은 化金하게 된다. 丙辛의 干頭는 戊子에서 시작하고 辰에 이르면 壬이 된다. 壬은 水가 되므로 丙辛은 化水하게 된다. 丁壬의 干頭는 庚子에서 시작하고 辰에 이르면 甲이 된다. 甲은 木이 되므로 丁壬은 化木하게 된다. 戊癸의 干頭는 壬子에서 시작하고 辰에 이르면 丙이 된다. 丙은 火가 되므로 戊癸는 化火하게 된다. 이것이 또 오운이 용을 만나서 변하는 것이다(如甲己干頭는 起于甲子하고 至辰屬戊라 戊爲土니 此甲己之所以化土也오 乙庚干頭는 起于丙子하고 至辰屬庚이라 庚爲金이니 此乙庚之所以化金也오 丙辛干頭는 起于戊子하고 至辰屬壬이라 壬爲水니 此丙辛之所以化水也오 丁壬干頭는 起于庚子하고 至辰屬甲이라 甲爲木이니 此丁壬之所以化木也오 戊癸干頭는 起于壬子하고 至辰屬丙이라 丙爲火니 此戊癸之所以化火也라 此又五運之遇龍而變者也라)”¹⁶⁾

역시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甲과 己의 일진이 들어 있는 날의 子時는 甲子부터 시작하게 된다. 甲子, 乙丑, 丙寅, 丁卯를 거쳐 戊辰에 이르게 되면 辰과 결합되는 天干이 戊가 된다. 辰은 12生肖에서 용이 되고 용은 잘 변한다. 그래서 甲己도 戊土를 따라 변해서 甲己化土한다는 것이다. 역시 큰 의의는 없다고 사료된다.

5. 男婚女嫁生子說

장개빈은 『類經圖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甲剛木이 己柔土를 克하여 부부가 되어 土運을 이루고, 乙柔木이 庚剛金에게 시집을 가서 金運을 이루고, 丁陰火가 壬陽水와 짝이 되어 木運을 이루고, 丙陽火가 辛柔金에게 장가들어 水運을 이루고, 戊陽土가 癸陰水에게 장가들어 火運을 이룬다.(甲剛木이 克己柔土하여 爲夫婦而成土運하고 乙柔木이 嫁

庚剛金而成金運하고 丁陰火가 配壬陽水而成木運하고 丙陽火가 娶辛柔金而成水運하고 戊陽土가 娶癸陰水而成火運이라)”¹⁷⁾

이는 甲己, 乙庚, 丙辛, 丁壬, 戊癸가 서로 부부를 이루고 기운을 주고 받아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를 이룬다는 내용으로 10干的 化氣五行이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의 배합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陰陽配合이다. 甲陽과 己陰이 相合하고, 乙陰과 庚陽이 相合하고, 丙陽과 辛陰이 相合하고, 丁陰과 壬陽이 相合하고, 戊陽과 癸陰이 相合한다. 이는 천지만물이 陰陽相合 연후에 生子하는 陰陽調和의 원리와 합치된다.

둘째는 相克配合이다. 甲木이 己土를 克하고, 庚金이 乙木을 克하고, 丙火가 辛金을 克하고, 壬水가 丁火를 克하고, 戊土가 癸水를 克한다. 모든 만물은 克을 받아야만 生成作用을 이루게 되고 또 克을 받아야만 生이 견실하게 된다. 이는 사람이 시련과 고통을 받아야만 철이 들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相克이 없으면 相生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相克은 生成作用의 裏面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항상 陽干이 陰干을 克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甲陽木이 克己陰土하고, 庚陽金이 克乙陰木하고, 丙陽火가 克辛陰金하고, 壬陽水가 克丁陰火하고, 戊陽土가 克癸陰水한다. 이는 先後天觀으로 볼 때 先天은 陽의 시대이고 하늘의 시대이고 상극의 시대인데 天干은 陽을 나타내고 하늘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陰陽이 만나 부부를 이루어 자식을 낳는데 甲父와 己母의 결합에서는 土가 나와서 어머니를 닮고, 庚父와 乙母의 결합에서는 金이 나와서 아버지를 닮고, 丙父와 辛母의 결합에서는 水가 나와서 嫡母가 되고, 壬父와 丁母의 결합에서는 木이 나와서 壬水가 嫡父가 되고, 戊父와 癸母의 결합에서는 火가 나와서 水土同

1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0.

1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0.

德하여 生火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왜 10干은 相克으로 결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이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土는 木克을 당하지 않으면 뭉쳐진 것이 소통되지 아니하고 소통되지 아니하면 生化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과 己가 상합한다. 木은 金克을 당하지 않으면 재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乙과 庚이 상합한다. 金은 火克을 당하지 않으면 器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丙과 辛이 상합한다. 火는 水克을 당하지 않으면 既濟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丁과 壬이 상합한다. 水는 土克을 당하지 않으면 범람하여 재앙을 끼치기 때문에 戊와 癸가 상합한다. 따라서 10干의 상합은 반드시 상극의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10干이 상합을 이룬 뒤에 반드시 化生을 하니 마치 사람이 결혼을 한 뒤에 반드시 자식을 낳는 것과 같다. 10干 相合의 법칙은 매양 4자리를 지나가서 相合한다. 甲은 4자리를 지나 己에게 장가가서 처를 삼기 때문에 甲과 己가 相合하여 化土한다. 乙은 4자리를 지나 庚에게 시집가서 부인이 되기 때문에 乙과 庚이 相合하여 化金한다. 丙은 4자리를 지나 辛에게 장가가서 처를 삼기 때문에 丙과 辛이 相合하여 化水한다. 丁은 4자리를 지나 壬에게 시집가서 부인이 되기 때문에 丁과 壬이 相合하여 化木한다. 戊는 4자리를 지나 癸에게 장가가서 처를 삼기 때문에 戊와 癸가 相合하여 化火한다. 10간이 4자리를 지나 서로 配合되는 관계는 우리들에게 2가지 문제를 提示해준다.

첫째 남녀의 결혼은 近親과 해서는 안 된다. 近親과 하면 生化가 어긋나게 된다. 甲乙이 모두 木이고, 丙丁이 모두 火이고, 戊己가 모두 土이고, 庚辛이 모두 金이고, 壬癸가 모두 水가 되어 2개의 짝이 모두 血緣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甲과 乙이 짝이 될 수 없고, 丙과 丁이 짝이 될 수 없고, 戊와 己가 짝이 될 수 없고, 庚과 辛이 짝이 될 수 없고, 壬과 癸가 짝이 될 수 없다.

둘째 음양의 혼인 관계는 인륜을 어지럽힐 수가 없으니 인륜을 어지럽게 하면 형세가 반드시 무너지고 滅絶하게 된다. 甲乙木은 丙丁火를 生하고, 丙丁火는 戊己土를 生하고, 戊己土는 庚辛金을 生하고,

庚辛金은 壬癸水를 生하고, 壬癸水는 甲乙木을 生하여 모두 父母와 자식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甲乙은 丙丁과 혼인하여 짝할 수가 없고, 丙丁은 戊己와 혼인하여 짝할 수가 없고, 戊己는 庚辛과 혼인하여 짝할 수가 없고, 庚辛은 壬癸와 혼인하여 짝할 수가 없고, 壬癸는 甲乙과 혼인하여 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매양 4자리를 건너 뛰어서 서로 짝을 지어야만 비로소 위의 관계를 피할 수가 있다¹⁸⁾. 10干의 男婚女嫁生子說은 우주의 법도를 통해 人事의 변화까지를 해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론이라 사료된다.

6. 형제오행과 부부오행에 담긴 含意

『周易』「繫辭傳」9장에서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이니 天數五오 地數五니 五位相得하며 而各有合하니 天數二十有五오 地數三十이라.”¹⁹⁾고 하였다. 여기서 天數五는 1, 3, 5, 7, 9를 말하고 地數五는 2, 4, 6, 8, 10을 말하며 五位相得은 1과 2, 3과 4, 5와 6, 7과 8, 9와 10이 각각 奇偶로 같은 類가 되어 이웃하여 있는 것이고 有合은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이 相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朱子는 10干에서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가 바로 相得이고, 甲과 己가 合하고, 乙과 庚이 合하고, 丙과 辛이 合하고, 丁과 壬이 合하고, 戊와 癸가 合하는 것이 有合이라고 설명하였다²⁰⁾.

天干의 운행에서 癸에서 丙까지의 전반기 天干의 형제오행과 부부오행 속에는 相克의 관계가 內在하고 丁에서 壬까지의 후반기 天干의 형제오행과 부부오행 속에는 本位이거나 相生의 관계가 內在한다. 癸는 본신은 水이나 火로 化하니 水克火의 관계가 內在하고, 甲은 본신은 木이나 土로 化하니 木克土의 관계가 內在하고, 乙은 본신은 木이나 金으로 化하니 金克木의 관계가 內在하고, 丙은 본신은 火이나 水로 化하니 水克火의 관계가 內在하여 相克 속

18) 閻鈞天. 運氣撮要.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5. p.36.

19) 周易(貞).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313.

20) 周易(貞).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315.

에서 만물을 기르는 象이 나타나 있다. 丁은 본신은 火이나 木으로 化하니 木生火의 관계가 內在하고, 戊는 본신은 土이나 火로 化하니 火生土의 관계가 內在하고, 己와 庚은 正五行과 化氣五行이 각각 모두 土와 金이라서 기운이 純一하고 辛은 본신은 金이나 水로 化하니 金生水의 관계가 內在하고, 壬은 본신은 水이나 木으로 化하니 水生木의 관계가 內在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相生 속에서 만물을 성숙시키는 象이 들어 있다.

天干의 부부오행과 배합되는 숫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4. 천간의 부부오행 및 숫자의 배합.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夫婦五行	土	金	水	木	火	土	金	水	木	火
配合數	5	4	1	8	7	10	9	6	3	2

배합의 원리는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에 각각 5·10土, 4·9金, 1·6水, 3·8木, 2·7火를 배합하되 陽干에는 陽數를 배합하고 陰干에는 陰數를 배합하면 된다.

V. 相沖

10干 사이에는 相沖의 관계가 있다. 10干的 상충은 四組로 나누어진다. 甲과 庚이 상충하고, 乙과 辛이 상충하고, 壬과 丙이 상충하고, 癸와 丁이 상충한다. 10干상충은 10干이 자리한 方位와 오행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甲庚상충, 乙辛상충은 甲이 동쪽에 있고 庚이 서쪽에 있으며, 乙도 동쪽에 있고 辛도 서쪽에 있어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하고, 또 甲乙은 木이 되고 庚申은 金이 되어 金克木하게 되므로 甲庚이 相沖하고 乙辛이 相沖하게 된다.

壬丙相沖, 癸丁相沖은 壬은 북쪽에 있고 丙은 남쪽에 있으며, 癸도 북쪽에 있고 丁도 남쪽에 있어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마주하고, 또 壬癸는 水가 되고 丙丁은 火가 되어 水克火하게 되므로 壬丙이 相沖하고 癸丁이 相沖한다. 10干 중의 戊己는 相沖관

계가 없는데 戊己는 모두 土에 속하고 또 모두 중앙에居하기 때문에 相沖이 없다.

VI. 臟腑配合

『素問』의 「藏氣法時論」에서

“肝主春하고 足厥陰少陽을 主治하며 其日은 甲乙이라……

心主夏하고 手少陰太陽을 主治하며 其日은 丙丁이라……

脾主長夏하고 足太陰陽明을 主治하며 其日은 戊己라……

肺主秋하고 手太陰陽明을 主治하며 其日은 庚辛이라……

腎主冬하고 足少陰太陽을 主治하며 其日은 壬癸라”²¹⁾ 라고 하였다. 이는 天干과 臟腑의 사이에 일정한 相互關聯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天干과 臟腑의 배합은 둘 사이의 상응하는 음양오행 속성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천간의 본질적인 음양과 오행의 속성은 甲·丙·戊·庚·壬이 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陽干이 되고, 乙·丁·己·辛·癸는 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陰干이 된다. 또 10干的 방위오행은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이다. 오장육부의 음양은 『素問』 「五藏別論」에서 “五藏者는 藏精氣而不瀉也라 故로 滿而不能實하고 六腑者는 傳化物而不藏이라 故로 實而不能滿也라.”²²⁾ 하였고, 『靈樞』 「本藏」에서 “五藏者는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오 六腑者는 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라”²³⁾ 하여 裏에 있으면서 精氣와 諸神을 간직하고 不瀉하는 오장은 陰에 속하고, 表에 있으면서 水穀을 소화시켜 精微之氣를 흡수하고 糟粕을 배출하여 不藏하는 六腑는 陽에 속한다. 그리하여 『素問』 「金匱眞言論」에서 “言人身之臟腑中陰陽하면 則臟者爲陰이오 腑者爲陽이니 肝心脾肺腎五臟은 皆爲陰이오 膽胃大腸小腸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49.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30.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288.

膀胱三焦六腑은 皆爲陽이라”²⁴⁾고 하였다. 오장의 오행배속은 肝膽은 木에 배속되고, 心小腸은 火에 배속되고, 脾胃는 土에 배속되고, 肺大腸은 金에 배속되고, 腎膀胱은 水에 배속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天干과 臟腑를 배합시켜 보면 甲乙이 木이고 肝膽이 木이나 陽에 속하는 甲에 腑인 膽이 배합되고 陰에 속하는 乙에 臟인 肝이 배합된다. 丙丁이 火이고 心小腸이 火이나 陽에 속하는 丙에 腑인 小腸이 배합되고 陰에 속하는 丁에 臟인 心이 배합된다. 戊己가 土이고 脾胃가 土이나 陽에 속하는 戊에 腑인 胃가 배합되고 陰에 속하는 己에 臟인 脾가 배합된다. 庚辛이 金이고 肺大腸이 金이나 陽에 속하는 庚에 腑인 大腸이 배합되고 陰에 속하는 辛에 臟인 肺가 배합된다. 壬癸가 水이고 腎膀胱이 水이나 陽에 속하는 壬에 腑인 膀胱이 배합되고 陰에 속하는 癸에 臟인 腎이 배합된다. 이렇게 배합되는 의의에 대해서 『醫學入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람이 천지의 壬의 氣를 잡아서 膀胱과 命門이 생겼고, 癸의 氣를 잡아서 腎이 생겼고, 甲의 氣를 잡아서 膽이 생겼고, 乙의 氣를 잡아서 肝이 생겼고, 丙의 氣를 잡아서 小腸이 생겼고, 丁의 氣를 잡아서 心이 생겼고, 戊의 氣를 잡아서 胃가 생겼고, 己의 氣를 잡아서 脾가 생겼고, 庚의 氣를 잡아서 大腸이 생겼고, 辛의 氣를 잡아서 肺가 생긴 것을 말한 것이다. (言人이 乘天地의 壬之氣而生膀胱命門하고 乘癸之氣而生腎하고 乘甲之氣而生膽하고 乘乙之氣而生肝하고 乘丙之氣而生小腸하고 乘丁之氣而生心하고 乘戊之氣而生胃하고 乘己之氣而生脾하고 乘庚之氣而生大腸하고 乘辛之氣而生肺라)”²⁵⁾

六臟六腑에 포함되는 心包와 三焦의 배합에 대하여는 異見이 존재한다. 李梴은 明堂詩를 인용하여 “甲膽乙肝丙小腸이요 丁心戊胃己脾鄉이라 庚屬大腸辛屬肺하고 壬屬膀胱癸腎藏이라 三焦亦向壬宮寄하니 胞絡同歸入癸方이라”²⁶⁾ 하여 三焦를 壬에 배합하고

胞絡을 癸에 배합하였다.

清代의 陳修園은 『醫學實在易』의 「六臟六腑納甲詩」에서 위의 내용을 고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합하였다.

“甲은 膽에 乙은 肝에 丙은 小腸에 배합하고, 丁은 心에 戊는 胃에 己는 脾에 배합하는 것이 고향을 찾은 것이다. 大腸은 庚의 자리에 원래 소속되고 牝臟인 肺는 辛의 방위가 됨을 더욱 상세하게 알 수가 있다. 壬水는 膀胱과 합하고 腎은 癸와 합하고, 三焦는 丙에 붙어 있고 膻中은 丁에 속하는 臟이다. 陽干은 마땅히 陽인 腑에 배합해야 하고 陰臟을 陰干에 배합하면 이치가 저절로 드러난다.(甲膽乙肝丙小腸이요 丁心戊胃己脾鄉이라 大腸庚位原相屬이오 牡肺²⁷⁾辛方更可詳이라 壬水爲膀胱腎癸合하고 三焦附丙膻丁藏이라 陽干宜納陽之腑요 陰配陰干理自彰이라)”²⁸⁾

陳修園은 三焦를 丙에 배합하고 膻中 즉 心包를 丁에 배합하였다. 三焦는 相火를 주장하고 六腑에 속함으로 陽干인 丙에 배합하고 心包도 相火를 주장하고 心을 둘러싸서 心과 一體를 이루고 있으므로 陰干인 丁에 배합하는 것이 壬에 三焦를 배합하고 癸에 心包를 배합하는 것보다 더욱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십간과 장부의 배합.

十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五臟六腑	膽	肝	小腸 (三焦)	心 (心包)	胃	脾	大腸	肺	膀胱	腎

李梴은 天干의 氣를 잡아서 臟腑가 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干에 단순히 臟腑를 배합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天干을 통해서 臟腑의 생리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方位오행보다는 化氣오행을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6.

25) 李梴. 醫學入門(I). 서울. 崇文社. 1978. p.266.

26) 李梴. 醫學入門(I). 서울. 崇文社. 1978. p.265.

27) 『靈樞』의 「順氣一日分爲四時」편에서 肺를 牝臟이라 하였으니 牡肺는 牝肺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28)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上). 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p.255.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膽은 甲과 상합하니 一面木이면서 一面土이다. 『素問』 「六節藏象論」에서 “凡十一臟은 皆取決於膽이라”하였고, 張志聰은 注釋에서 “膽主甲子하니 爲五運六氣之首라 膽氣升則十一臟腑之氣 皆升故로 取決於膽也라”²⁹⁾고 었다. 李東垣은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에서 “膽者是 少陽春升之氣니 春氣升則萬化安 故로 膽氣春升則餘臟從之라”³⁰⁾고 하여 甲3木과 甲5土가 10干的 머리가 되어 나머지 天干을 이끌어 가듯이 膽이 11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파괴될 때 험과 글로빈으로 분리되고 험은 다시 철과 노란색의 빌리루빈으로 분리되며 빌리루빈은 혈액에 실려 간으로 옮겨가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고 한다. 담즙산으로 재생된 빌리루빈으로 소장에서 지방질음식은 소화하는 데 이용된 후 대장을 통해서 대변과 함께 배출된다. 다시 말하면 대변색이 노란 이유는 膽汁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膽이 土로 작용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또 쓸개즙이 지나가는 담도에 결석이 생겨 담도를 막아버리면 혈액에 빌리루빈의 농도가 높아져 황달이 유발되는데 역시 膽과 土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肝은 乙과 상합하니 一面木이면서 一面金이다. 한동석은 『우주변화의 원리』 책에서 質量 변화를 논하면서 肝을 金이라 하였다. 肝은 본질적으로 보면 木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金이라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肝을 體陰而用陽이라 하는데 이는 곧 體金而用木을 말하는 것이다. 肝은 酸味が 들어가 酸生肝함으로 신축성이 적고 병이 들면 硬化되어 간다. 體金의 대표작용이 肝藏血이고 用木의 대표작용이 肝主疏泄이다.

小腸은 丙과 相合하니 一面火이면서 一面水이다. 小腸은 胃에서 초보적으로 소화를 거친 음식물을 受盛하여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더욱 細分化시키고 泌別淸濁하여 수곡의 정미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

기는 대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대량의 水液을 吸收하는데 이를 小腸主液이라고 한다. 따라서 小腸에 邪氣가 침범하면 腹痛泄瀉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素問』 「舉痛論」에서 “寒氣가 客于小腸하면 小腸이 不得成聚 故로 後泄腹痛矣라”³¹⁾고 하였다. 이를 보면 小腸이 水液代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담당하고 있으니 丙과 배합되는 小腸과 水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다.

心은 丁과 상합하니 一面火이면서 一面木이다. 心은 사람 몸의 血을 주관하여 온몸에 보내주는 작용을 한다. 血管이 전신에 분포된 것은 火의 모습이지만 心臟의 搏動에 의해 이를 보내는 推動力을 木氣로 볼 수가 있다.

胃는 戊와 상합하니 一面土이면서 一面火이다. 『五藏別論』에서 “胃者是 水穀之海니 六腑之大源也라”³²⁾ 한 것은 受納水穀하는 胃土의 기능을 말한 것이고 腐熟하는 消化기능은 火의 역할을 말한 것이다. 불이 모든 음식물을 익히듯이 胃火가 없으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

脾는 己와 상합하니 己는 方位五行과 化氣五行이 모두 土이므로 主運化하여 氣血生化之源, 後天之本이 되어 전신을 營養한다.

大腸은 庚과 상합하니 庚은 方位五行과 化氣五行이 모두 金이므로 大腸主津하여 水分을 再吸收하여 大便을 건조하게 만들고 金氣의 肅降作用에 의해 傳導糟粕하여 體外로 排出시킨다.

肺는 辛과 相合하니 一面金, 一面水이다. 『素問』 「經脈別論」에서 肺는 “通調水道하여 下輸膀胱”³³⁾한다고 하였다. 이는 肺가 인체 내의 水液運行의 도로를 疏通시키고 調節한다는 의미이다. 通調水道를 肺의 고유 기능인 宣發과 肅降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肺는 宣發作用을 통해 津液을 全身에 輸布運行하게 하여 水液을 體表까지 보내고 衛氣를 통해 腠理를 개합하여 땀의 배설을 조절한다. 또 肅降作用을 통

2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98.

30)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69.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p.78-79.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30.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48.

해 津液을 아래로 수송하고 대사 후에는 腎의 氣化 작용을 통해 소변을 만들어 방광을 통해 체외로 배설시킨다. 이처럼 肺는 水液의 輸布, 運行, 排泄을 조절하므로 肺主行水한다고 하고 肺는 臟腑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水液代謝를 주관하므로 肺爲水之上源이 되어 金生水한다고 한다. 이처럼 肺는 본신은 金이나 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膀胱은 壬과 相合하니 一面水, 一面木이다. 방광은 津液을 藏하는 水의 기관이나 氣化作用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津液을 체외로 배출시켜 소변이 힘차게 나가게 하고 하단전에 위치하여 氣를 화생하니 또한 木의 기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腎은 癸와 相合하니 一面水, 一面火이다. 四神圖에서 北方의 玄武를 보면 水를 상징하는 거북과 火를 상징하는 뱀이 얽혀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腎에는 水火가 共棲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腎에는 腎陰과 腎陽이 있어 臟腑陰陽之本이 되고 先天之本이 되는데, 腎陰은 신장에 간직되어 있는 精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기초가 되고 腎陽은 인체의 각 장부조직기관에 대하여 溫煦, 推動作用을 한다. 이러한 腎陽은 水中之火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를 특별히 命門이라 하며 三焦를 통하여 기능이 발현된다. 전통적으로 腎에 배합되는 坎卦(☵)의 陰爻를 腎水, 眞水, 眞陰으로 보고 陽爻를 腎火, 眞火, 眞陽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더라도 腎에 水火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상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오행이 일치하는 脾와 大腸 그리고 肝과 腎을 제외하고는 그 이론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Ⅶ. 結論

십간의 음양배합, 형제오행배합, 부부오행배합, 상충, 장부배합 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십간의 음양배합은 奇偶로 음양을 나누면 甲·丙·戊·庚·壬이 양이 되고, 乙·丁·己·辛·癸가 음이 되며, 生成으로 음양을 나누면 甲·乙·丙·丁·戊가 양

이 되고 己·庚·辛·壬·癸가 음이 된다.

2. 십간은 초목의 한살이에서 취상하였는데, 종자가 껍질을 뚫고 나와 뿌리를 내리는 甲과 껍질과 땅을 뚫고 나와 힘들게 꾸불꾸불 자라는 乙은 생에 해당하여 甲乙은 木에 속하고, 땅을 뚫고 나와 땅위에 모습을 드러낸 丙과 썩썩하게 성장하는 丁은 長에 해당하여 丙丁은 火에 속하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戊와 성장이 중지된 己는 化에 해당하여 土에 속하고,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庚과 새로운 생명의 기틀이 잠복하는 辛은 收에 해당하여 金에 속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壬과 다음 주기의 생명이 싹을 틔우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癸는 藏에 해당하여 水에 속한다.
3. 십간의 부부오행배합에 대한 이론은 五氣經天化五運說, 對化作用說, 生于正月建寅說, 遇龍而變說, 男婚女嫁生子說 등이 있는데, 五氣經天化五運說은 하늘의 계시가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對化作用說은 철학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天干의 부부오행상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生于正月建寅說과 遇龍而變說은 큰 의의는 없다고 사료되며, 男婚女嫁生子說은 天道를 통해 人事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4. 부부오행배합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陰陽配合으로 천지만물이 陰陽相合과 陰陽調和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징하고, 둘째 相克配合으로 모든 만물은 相克을 통해서 生成作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며, 셋째 陽干克陰干하는데 先天은 陽의 시대이고 하늘의 시대인데, 天干은 양을 나타내고 하늘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5.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와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의 배합은 『周易』에서 설명한 자연수의 배합에서 1과 2, 3과 4, 5와 6, 7과 8, 9와 10이 相得하고,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이 相合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6. 天干에서 癸·甲·乙·丙까지는 방위오행과 부부오행

이 相克의 關係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先天相克을 상징하고, 丁에서 壬까지는 방위오행과 부부오행이 本位이거나 相生의 關係가 內在하는데, 이는 만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後天相生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7. 十干的 相沖은 甲과 庚이 상충하고, 乙과 辛이 상충하고, 壬과 丙이 상충하고, 癸와 丁이 상충하는데, 이는 10간이 자리한 방위와 오행의 상극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8. 十干에 장부를 배합하면 양간에 양인 腑를 배합하고 음간에 음인 臟을 배합하여 甲과 膽, 乙과 肝, 丙과 小腸, 丁과 心, 戊와 胃, 己와 脾, 庚과 大腸, 辛과 肺, 壬과 膀胱, 癸와 腎을 배합시킨다.

9. 膽과 배합되는 甲은 一面木, 一面土이므로 木과 土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肝과 배합되는 乙은 一面木, 一面金이므로 木과 金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小腸과 배합되는 丙은 一面火, 一面水이므로 火와 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心과 배합되는 丁은 一面火, 一面木이므로 火와 木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胃와 배합되는 戊는 一面土, 一面火이므로 土와 火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脾와 배합되는 己는 모두 土이므로 氣血生化之源, 後天之本이 되어 전신을 營養하고, 大腸과 배합되는 庚은 모두 金이므로 水分을 재흡수하여 대변을 건조하게 만들고 肅降作用으로 糟粕을 체외로 배출하며 肺와 배합되는 辛은 一面金, 一面水이므로 金과 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膀胱과 배합되는 壬은 一面水, 一面木이므로 水와 木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腎과 배합되는 癸는 一面水, 一面火이므로 腎陰과 腎陽이 있어 臟腑陰陽之本이 되고 先天之本이 된다.

3. 李梴. 醫學入門(I). 서울. 崇文社. 1978. p.265, p.266.
4. 白允基 譯.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p.173.
5. 소강철 저, 윤상철 편역. 황극경세(3). 서울. 대유학당. 2011. pp.569-572.
6. 閻鈞天. 運氣撮要.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5. pp.33-34, P.36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9, p.25-26, p.39-40.
8.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98.
9. 周易(貞).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313, p.315.
10. 陳修園. 陳修園醫書七十二種(上). 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 1978. p.255.
1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2001. p.137, p.127-134.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p.128, p.129, p.49, p.30, p.288, p.16, p.78-79, p.30, p.48
13.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高文社. 1977. pp.66-67.

References

1. 劉杰. 中國八卦運氣. 青島. 青島出版社. 1999. p.187.
2. 李東垣 外 5人. 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3. p.69.